

보도일시 | 2025년 2월 26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도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레지던시 입주작가 최종 선정

- 문학, 시각예술분야 입주작가 최종 선정 -

-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(고래문화재단 운영)은 레지던시 공간인 장생포 아트스테이와 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131의 2025년 입주 작가 17명을 최종 선정했다.
-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된 입주 작가 공개 모집에는 총 51명이 지원하였으며, 1차 서류 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2월 21일 최종 선정되었다.
- 선정된 입주작가는 ▲장생포 아트스테이(문학) - 강병철(소설·시), 김민수(희곡), 김순영(소설), 김태영(필명:김이재)(수필), 김정희(시), 김지성(소설), 유덕희(소설), 이병용(시·아동청소년문학), 이수정(필명:이다온)(수필), 이영훈(수필), 이채운(소설), 이현수(소설), 정성연(필명:정라헬)(소설), 최미정(아동문학) 이상 14명(출퇴근형 6명, 숙박형 8명) ▲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131(시각예술) - 이민정(평면회화), 장영은(동양화·공예), 장우석(회화·설치)로 3명이 최종 선정되었다.
- 문학 심사위원단은 “전국에서 많은 작가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” 며, “창작 공간 제공은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” 이라고 평가했다. 시각예술 분야 심사위원단은 “우수한 작품과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응모해 올해는 선발 과정이 더욱 어려웠다” 며, “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한 작가들에게도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” 고 총평을

남겼다.

- (재)고래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는 입주 작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참여 작가들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. 특히, 2021년 입주 작가인 임택수는 장편소설 <김섬과 박혜람>으로 세계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.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는 장생포문화창고와 함께 장생포가 배경으로 등장해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. 또한, 시각예술 분야의 작가들 역시 레지던시 경험을 발판 삼아 서울, 청주, 전주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.

- 선정된 작가들 중 시각예술분야 작가들은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며, 입주 작가 소개전을 시작으로 울산 남구에서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. 고래문화재단 이사장은 “작가 워크숍, 교류 전시 및 프로그램, 예술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울산 남구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, 문화적 기반이 부족한 이 지역이 창작과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.” 라고 강조했다.

[문의]

- 전시기획팀: 052-226-0017
- 접수메일: 052namguart@gmail.com
- 홈페이지: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(www.uwcf.or.kr/namguart)

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2. 26.
